『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3)*

-권8, 05:18-06:23 부분을 중심으로-

이 용**

요 약

점토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8의 05:18-06:23 부분에 대한 잠정적인 해독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이 글은 점토구결인 『유가사지론』 권8의 일부(05:18-06:23)에 대하여 해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전체의 해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은 '煩惱雜染'에 속하는 9가지 중 '煩惱上品'과 '煩惱顚倒攝'에 관한 것이다.[1] 이 중 '煩惱上品'과 '煩惱顚倒攝'은 다시 각각 6가지와 7가지로 나뉜다.[2] '煩惱上品'의 6가지는 '由

---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두 차례(2003년 5월 31일, 6월 28일)에 걸쳐 강독한 요지문을 정리한 것이다. 원래의 요지문의 내용에 약간의 설명을 더하거나 몇 가지 잘못된 것을 고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의 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1) '煩惱雜染'에 속하는 9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煩惱自性<01:14-01:16>, 煩惱分別<01:17-04:16>, 煩惱因<04:17-05:02>, 煩惱位<05:03-05:07>, 煩惱門<05:08-05:17>, 煩惱上品<05:18-06:07>, 煩惱顚倒攝<06:08-06:23>, 煩惱差別<07:01-08:22>, 煩惱過失<08:22-09:12>.

犯', '由生', '由相續', '由事', '由起惡業', '由究竟'이 되고, '煩惱顚倒攝'의 7가지는 '想倒', '見倒', '心倒', '於无常常倒', '於苦樂倒', '於不淨淨倒', '於無我我倒'가 된다. 이들 13가지에 대한 설명이 또한 각각 나와 있다.

구체적인 해독안은 다음과 같다. 해독안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A-E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

A: 원문에 현토된 구결점과 부호를 판독한 결과[3]
B: 현토된 구결점의 대응 구결자 표시[4]
C: 자토석독구결문으로 재구성한 결과
D: 구결문에 의거하여 현대국어로 축자역한 결과
E: 해당 부분의 역경원 번역

<유가08 05:18-19>

A: 云何[34(·)]煩惱上品相[51(·),15(·.)]謂猛利相[31(·)]及{44(·)}尤重相[31(·),51(·)]
B: 云何[乙]煩惱上品相[ㅣ,ノ令ㅁ]謂猛利相[人]及尤重相[人, ㅣ]
C: {云}何乙 煩惱上品相(ㅐ)ㅣ ノ令ㅁ 謂 猛利相人 及 尤重相人(ㅐ)ㅣ
D: 무엇을 煩惱上品相이라고 하는가? 즉 猛利相과 尤重相이다.
E: 무엇을 번뇌의 나은 품위의 모양이라 하느냐 하면, 사납고 날카로운 모양과 더욱 중한 모양을 말하나니,

---

2) 피휘자이다. 사람인 발의 오른쪽 발을 생획하여 피휘하였다.
3) 'A'는 현재 소장파들이 주축이 되어 매주 월요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강독모임의 공동 매뉴얼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4) 점도의 대응 구결자는 장경준(2002년 12월 발표)을 따랐다.

<유가08 05:19-21>

A: 此{33~34(·)}相[44(·)]略[33~34(·)]有六種[51(·)]一由犯[34(·),24(·)43(·)]故二由生故三由相續故四由事故五由起惡業[34(·),45(/),=24(·),43(·)]故[55(·)]六由究竟[5][34(·),24(·),43(·)]{22(·)}故[51(·)]

B: 此相[十]略[ㅁㄱ]有六種[ㅣ]一由犯[乙,ㅔ,ㅱ]故二由生故三由相續故四由事故五由起惡業[乙,x入乙,ㅔ,ㅱ]故[分]六由究竟[乙,ㅔ,ㅱ]故[ㅣ]

C: 此 相十 略ㅁㄱ 六種 有ㅣ 一 犯乙 由ㅔ(ㄱ)ㅱ{故}(分) 二 生(乙) 由(ㅔㄱㅱ){故}(分) 三 相續(乙) 由(ㅔㄱㅱ){故}(分) 四 事(乙) 由(ㅔㄱㅱ){故}(分) 五 惡業乙 起x入乙 由ㅔ(ㄱ)ㅱ{故}分 六 究竟乙 由ㅔ(ㄱ)ㅱ{故}ㅣ

D: 이 相에 간략히 말하면 六種이 있다. 첫째 犯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둘째 生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셋째 相續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넷째 事를 말미암은 까닭이며 다섯째 惡業을 起함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여섯째 究竟을 말미암은 까닭이다.

E: 이 모양에는 간략하게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범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둘째는 남으로 말미암아서요, 셋째는 서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요, 넷째는 일로 말미암아서요, 다섯째는 나쁜 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요, 여섯째는 마지막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유가08 05:21-22>

A: 由犯[34(·),24(·),43(·)]故[51(·)]者[23~33(/)]謂由此煩惱纏[34(·),24(·)43,(·)]{51(·)}故[21(·)]{41(·)}毁犯一切所有[33(/),42(·)]學處[34(·),15~25(/),55(·)]

B: 由犯[乙,ㅔ,ㅱ]故[ㅣ]者[ㅅㄱ入ㄱ]謂由此煩惱纏[乙,ㅔ,ㅱ]故[ノ]毁犯一切所有[ㅅㄱ,七]學處[乙,ㅅx矢,分]

---

5) 피휘자이다. 사람인 발의 오른 발을 생획하여 피휘하였다.

C: 犯乙 由ᄒᆞ(ㄱ)ᄆᆞᆷ{故}ㅣ{者}ᄂᆞᆫㄱㅅㄱ 謂 此 煩惱纏乙 由ᄒᆞ(ㄱ)ᄆᆞᆷ{故}ㅅ 一切 有ᄂᆞᆫㄱ 所ㄴ 學處乙 毁犯ᄂᆞᆼᄉᆞᆸ가

D: 犯을 말미암은 까닭이라 하는 것은 즉 이 煩惱纏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一切의 가진 바의 學處를 毁犯함이며

E: 범함으로 말미암아서라 함은 이 번뇌가 얽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배움이 있는 데를 깨뜨리거나 범함을 말함이요,

<유가08 05:22-23>

A: 由生[6][34(·),24(·),43(·),구결자(乙)]故[51(·)]者[23~33(/)]謂由[7]此[34(·),24(·),43(·)]故[21(·)]生[역독선]於欲界[=42(·)]{33(·)}若{14(·)}惡趣[15~25(/),55(·)?]中[8][44(·),지시선(/)[9]]

B: 由生[乙,ᄒᆞ,ᄆᆞᆷ]故[ㅣ]者[ᄂᆞᆫㄱㅅㄱ]謂由此[乙,ᄒᆞ,ᄆᆞᆷ]故[ㅅ]生於欲界[ㄴ]若惡趣[ᄂᆞᆼᄉᆞᆸ,가]中[十]

C: 生乙 由ᄒᆞ(ㄱ)ᄆᆞᆷ{故}ㅣ{者}ᄂᆞᆫㄱㅅㄱ 謂 此乙 由ᄒᆞ(ㄱ)ᄆᆞᆷ{故}ㅅ {於}欲界ㄴ 若 惡趣 中十 生ᄂᆞᆼᄉᆞᆸ가

D: 生을 말미암은 까닭이라 하는 것은 즉 이를 말미암은 까닭으로 欲界의 惡趣 中에 生함이며

E: 남으로 말미암아서라 함은 이로 말미암아 욕심 세계와 나쁜 갈래

---

6) 生 중간에 역독선과 역사선의 중간 쯤 되어 보이는 선이 있다. 해독에 반영하기 어렵다.

7) 由에 45의 위치에 '∴' 점토가 있으나 해독에 반영하기 어렵다.

8) 中자 오른쪽 아래에 묵서로 '三'자가 기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해독에 반영하기 어렵다.

9) 지시선이 언뜻 보면 趣에 기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원래는 中에 달아야 할 점토들을 趣에 달았기 때문에 지시선을 그은 것이므로 中에 지시선을 그은 것이다. 지시선을 그은 한자와 지시선이 가리키는 한자에 모두 점토가 달려 있을 때는 우선 지시선이 달려 있는 한자의 점토를 해독에 반영하고 그 뒤에 지시선이 가리키는 한자에 달려 있는 점토를 해독에 반영하면 된다.

안에 남을 말함이요,

<유가08 06:01-02>

A: 由相續[34(·),24(·),43(·)]故[51(·)]者[23~33(/)]謂貪等[33(/)]行[42(·)]諸根成熟[15(·)]少年盛壯[11~21(-),31(·)]無涅槃法[31(·),55(·)]者[지시선(/)]

B: 由相續[乙,ㅔ,ᄆ]故[ㅣ]者[ㅅㄱㅅㄱ]謂貪等[ㅅㄱ]行[ㄴ]諸根成熟[ㅁ]少年盛壯[ㅅㅂ,人]無涅槃法[人,ㅀ]者

C: 相續乙 由ㅔ(ㄱ)ᄆ{故}ㅣ{者}ㅅㄱㅅㄱ 謂 貪 等ㅅㄱ 行ㄴ 諸 根 成熟(ㅅ)ㅁ 少年 盛壯ㅅㅂ人 無涅槃法者人(ㅢ)ㅀ

D: 相續을 말미암은 까닭이라 하는 것은 즉 貪 등의 行의 諸 根이 成熟하고 少年 盛壯하는 것과 無涅槃法者이며

E: 서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라 함은 탐냄 따위의 행위인 모든 뿌리가 성숙하여 소년으로부터 혈기가 왕성하여지면서 열반의 법이 없는 이를 말함이요,

<유가08 06:02-04>

A: 由[역독선]事[34(·),24(·),43(·),구결자(乙)]故[51(·)]者[23~33(/)]謂緣[역독선]尊重田[34(·),35(·)]若緣[역독선]功德田[34(·),35(·)]若緣[역독선]不應行田[34(·),35(·),22(·)]而[43(·)]起[15~25(/),55(·)]

B: 由事[乙,ㅔ,ᄆ]故[ㅣ]者[ㅅㄱㅅㄱ]謂緣尊重田[乙,ㅎ]若緣功德田[乙,ㅎ]若緣不應行田[乙,ㅎ,ㅈ]而[ᄆ]起[ㅅx矣,ㅀ]

C: 事乙 由ㅔ(ㄱ)ᄆ{故}ㅣ{者}ㅅㄱㅅㄱ 謂 尊重田乙 緣(ㅅ)ㅎ 若 功德田乙 緣(ㅅ)ㅎ 若 不應行田乙 緣(ㅅ)ㅎ(ㅅ)ㅈ 而ᄆ 起ㅅx矣ㅀ

D: 일을 말미암은 까닭이라 하는 것은 즉 尊重田을 緣하거나 功德田을 緣하거나 不應行田을 緣하거나 하여 起함이며

E: 일로 말미암아서라 함은 존중되는 밭을 반연하거나 공덕의 밭을 반연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할 밭을 반연하거나 하면서 일어남을 말함이요,

<유가08 06:04-05>

A: 由[역독선]起[역독선]惡業[34(·),45(/),24(·),43(·)]故[51(·)]者[23~33(/)]謂[33(·)]由此煩惱纏[34(·),24(·),43(·)]故[21(·)]以[역독선]增上適悅[24(·)]心[34(·),지시선(/)]起[역독선]身語業[34(·),15~25(/),55(·)]

B: 由起惡業[乙,x入乙,ㅣ,ᄆ]故[ㅣ]者[ㄴㄱ ㅅㄱ]謂[ㄱ]由此煩惱纏[乙,ㅣ,ᄆ]故[ㄴ]以增上適悅[ㅣ]心[乙]起身語業[乙,ㄴx矢,分]

C: 惡業乙 起x入乙 由ㅣ(ㄱ)ᄆ{故}ㅣ{者}ㄴㄱ入ㄱ 謂ㄱ 此 煩惱纏乙 由ㅣ(ㄱ)ᄆ{故}ㄴ 增上適悅心乙 {以}ㅣ 身語業乙 起ㄴx矢分

D: 惡業을 起함을 말미암은 까닭이라 하는 것은 즉 이 煩惱纏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增上適悅心으로써 身語業을 起함이며

E: 나쁜 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라 함은 이 번뇌가 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왕성하게 알맞고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몸과 말의 업을 일으킴을 말함이요,

<유가08 06:05-07>

A: 由[역독선]究竟[10][34(·),24(·)43(·)]故[51(·)]者[23~33(/)]謂[33(·)]此自性[22~32(·)]上品[43(·)]所攝[33(\),31(·)][11],구결자(ㅛ)]最初 耎對治道[43(·)]之所斷[15~25(-),33~43(·),구결자(ㅌ)]故[43(·),51(·)]

10) 피휘자이다.

11) 'ㅅ'와 'ㅛ'에 대응되는 것이 모두 '31'에 단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ㅅ'에 대응되는 점토는 '31'보다 약간 높은 곳에 기입된다.

B: 由究竟[乙,ᄀ,ᄆ]故[ㅣ]者[ᄂᆞᆨㅅᆨ]謂[ᆨ]此自性[ㅐ]上品[ᄆ]所攝[ᄂᆞᆨ,ㅁ]叡初奚對治道[ᄆ]之所斷[尸,卬]故[ᄆ,ㅣ]

C: 究竟乙 由ᄀ(ᆨ)ᄆ{故}ㅣ{者}ᄂᆞᆨㅅᆨ 謂ᆨ 此 自性ㅐ 上品ᄆ 攝ᄂᆞᆨ 所(ㅐ)ㅁ 叡初奚對治道ᄆ{之} 斷(ᄂᆞ)尸 所卬{故}ᄆ(ㅐ)ㅣ

D: 究竟을 말미암은 까닭이라 하는 것은 즉 이 自性이 上品으로 攝한 바이라서 叡初奚對治道로 斷할 바인 까닭이다.

E: 마지막으로 말미암아서라 함은 이는 제 성품의 윗 품위에 딸린 바로서 맨 첫째의 부드럽게 다스림의 길에서 끊을 바이기 때문이다.

<유가08 06:07-10>

A: 煩惱[12]顚倒攝[13][51(·)]者[23~33(·)]謂七顚倒[33~43(·)]一想倒[31(·)]二見倒[31(·)]三心倒四於无常[44(·)]常[=32~42(·),15~24(/),=42(·)]倒[31(·)]五於苦[44(·)]樂[32~42(·),15~24(/),42(·)]倒[31(·)]六於不淨[44(·)]淨[32~42(·),15~24(/),42(·)]倒[31(·)]七於無我[44(·)]我[32~42(·),15~24(/),42(·)]倒[31(·),51(·)]

B: 煩惱顚倒攝[ㅣ]者[ㅅᆨ]謂七顚倒[卬]一想倒[ㅅ]二見倒[ㅅ]三心倒四於无常[十]常[ㅅ,ᄂᆞᄉᆞ,七][14]倒[ㅅ]五於苦[十]樂[ㅅ,ᄂᆞᄉᆞ,七]倒[ㅅ]六

---

12) 내용상으로나 형식상 줄이 바뀔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곳에서 줄을 바꾸고 있다. 그 이유를 밝히기가 어렵다.

13) 여기서부터가 '煩惱顚倒攝'에 관한 부분이다. 원래 雜染施設建立은 ㉠煩惱雜染, ㉡業雜染, ㉢生雜染의 三種雜染으로 말미암는다. 또한 각각의 雜染은 ① 自性, ②分別, ③因, ④位, ⑤門, ⑥上品, ⑦顚倒攝, ⑧差別, ⑨過失의 9가지 연고로 말미암는다. 이 두 가지 원인을 조합하면 3×9=27가지가 된다. 그 중 <06:07>부터 <06:23>까지는 '㉠煩惱雜染+⑦顚倒攝'에 관한 설명이다.

14) 위의 구결토와 관련된 것은 자토석독구결에서는 '금광명경'에서 찾을 수 있다. 'ㅅ'는 인용조사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何ᄉᆞᄂᆞᆨ乙{者} {爲}五ㅐㅅㅁᄂᆞᄉᆞ口ᄂᆞᄉᆞᄂᆞᄀᆞ尸ㅅᆨ 一者 信根乙ᄂᆞᄉᆞ <금광02:20-03:04>

言乃ㄷ尸 善男子ㅈ 何ᄂᆞᆨ乙{者} 波羅蜜義ㅐㅅㅁᄂᆞᄉᆞ口ᄂᆞᄉᆞᄀᆞᄒᆞ尸ㅅᆨ <금

於不淨[十]淨[ㅅ,ㅅ仝,七]倒[人]七於無我[十]我[ㅅ,ㅅ仝,七]倒[人,ㅣ]

C: 煩惱顚倒攝(ㄐ)ㅣ{者}(ㅅㄱ)入ㄱ 謂 七顚倒卬 一 想倒人 二 見倒人 三 心倒(人) 四 {於}无常十 常(ㄐ)ㅅㅅ仝七 倒人 五 {於}苦十 樂(ㄐ)ㅅㅅ仝七 倒人 六 {於}不淨十 淨(ㄐ)ㅅㅅ仝七 倒人 七 {於}無我十 我(ㄐ)ㅅㅅ仝七 倒人(ㄐ)ㅣ

D: 煩惱顚倒攝이라 하는 것은 즉 七顚倒이니, 첫째 想倒와 둘째 見倒와 셋째 心倒와 넷째 无常에 (대해서) 常이라 하는 倒와 다섯째 苦에 (대해서) 樂이라 하는 倒와 여섯째 不淨에 (대해서) 淨이라 하는 倒와 일곱째 無我에 (대해서) 我이라 하는 倒이다.

E: 번뇌의 뒤바뀜 동아리라 함은 일곱 가지 뒤바뀜을 말한다. 첫째는 생각의 뒤바뀜이요, 둘째는 소견의 뒤바뀜이요, 셋째는 마음의 뒤바뀜이요, 넷째는 무상한 데에서 항상하다는 뒤바뀜이요, 다섯째는 괴로운 데서 즐겁다는 뒤바뀜이요, 여섯째는 깨끗하지 못한 데서 깨끗하다는 뒤바뀜이요, 일곱째는 <나>가 없는 데서 <나>라는 뒤바뀜이다.

<유가08 06:10-12>

A: 想倒[51(·)]者[23~33(·)]謂於无常[31(·)]苦[31(·)]不淨[31(·)]无我[31(·),42(·)]中[44(·)]起常[31(·)]樂[31(·)]淨[31(·)]我[31(·),42(·)]妄想分別[34(·),15~25(/),55(·)]

B: 想倒[ㅣ]者[入ㄱ]謂於无常[人]苦[人]不淨[人]无我[人,七]中[十]起常[人]樂[人]淨[人]我[人,七]妄想分別[乙,ㅅx矣,分]

C: 想倒(ㄐ)ㅣ{者}(ㅅㄱ)入ㄱ 謂 {於}无常人 苦人 不淨人 无我人七 中十 常人 樂人 淨人 我人七 妄想 分別乙 起ㅅx矣分

광05:07-14>

善男子ㅋ {云}何ㅗ 初地 而ㅠ 名下 歡喜ㄐ亼ㅅㅁㅁ仝ㅁㅅㅎ入ㄱ <금광06:21-07:02>

D: 想倒라 하는 것은 즉 无常과 苦와 不淨과 无我의 中에 常과 樂과 淨과 我의 妄想 分別을 起함이며,

E: 생각의 뒤바뀜이라 함은, 무상과 괴로움과 깨끗하지 못함과 <나>가 없는 가운데서 항상하다, 즐겁다, 깨끗하다, <나>다 하는 허망한 생각으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요,

<유가08 06:12-13>

A: 見倒[51(·)]者[23~33(/)]謂卽於彼妄想所分別[42(·)]中[44(·)]忍可欲樂[15(·)]建立執著[15~25(/),55(·)]

B: 見倒[ㅣ]者[ㅅㄱ ㅅㄱ]謂卽於彼妄想所分別[ㄴ]中[十]忍可欲樂[ㅁ]建立執著[ㅅx矣,ㅁ]

C: 見倒(ㅢ)ㅣ{者}ㅅㄱ ㅅㄱ 謂 卽 {於}彼 妄想 所分別ㄴ 中十 忍可欲樂(ㅅ)ㅁ 建立執著ㅅx矣ㅁ

D: 見倒라 하는 것은 즉 그 妄想 所分別의 가운데에서 忍可欲樂하고 建立執著함이며

E: 소견의 뒤바뀜이라 함은 그 허망한 생각으로 분별하는 가운데서 차마 옳다 하고 바라며 즐기고 세워서 집착하는 것이요,

<유가08 06:13-14>

A: 心倒[51(·)]者[23~33(·)]謂[33(·)]卽[21(·)]於彼所執著[42(·)]中[44(·),지시선(\)]貪[=15~24,(/),42(·)]等[=33(/)]煩惱[51(·)]

B: 心倒[ㅣ]者[ㅅㄱ]謂[ㄱ]卽[ㅎ]於彼所執著[ㄴ]中[十]貪[ㅅ仝,ㄴ]等[ㅅㄱ]煩惱[ㅣ]

C: 心倒(ㅢ)ㅣ{者}(ㅅㄱ)ㅅㄱ 謂ㄱ 卽ㅎ {於}彼 所執著ㄴ 中十ㅅ仝ㄴ[15] 貪 等ㅅㄱ 煩惱(ㅢ)ㅣ

15) '-十ㅅ仝ㄴ'에서 분석되는 동사 어간 'ㅅ-'는 원문이나 앞뒤의 구결문을 통해 볼 때, 대체로 '존재동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자토석독

D: 心倒라 하는 것은 즉 그 所執著의 가운데서 貪 등의 煩惱이다.
E: 마음의 뒤바뀜이라 함은 곧 그의 집착하고 있는 가운데서 탐냄 따위의 번뇌이다.

<유가08 06:15>

A: 當知[51(·)]煩惱[44(·)]略[33~34(·)]有三種[33~43(/),11(·)[16]]
B: 當知[ㅣ]煩惱[十]略[ㅁㄱ]有三種[ㅅㄱ 卬,丁]
C: 當(ㅅ) 知(ㅎ)ㅣ 煩惱十 略ㅁㄱ 三種 有ㅅㄱ 卬丁
D: 마땅히 알아야 한다, 煩惱에 간략히 하면 三種이 있는 것이여.
E: 번뇌에는 간략하게 세 가지가 있는 줄 알아야 하리니,

구결 자료에도 '존재동사'와 관련을 지어 볼 만한 예들이 나타난다.

가. 善男子ㅇ 是ㅣ 月光王ㄱ 已ㅔ {於}過去ㄷ 十千劫ㄷ 中ㅇㅌ 龍光 王佛法ㄷ 中ㅇ十ㅅㅇ 四住ㄷ 開士ㅣ尸 {爲}のしㅅㅣナㄱし 我ㄱ 八住ㄷ 菩薩ㅣ尸 {爲}のしㅅㅣハ白ろㄱのㅠ 今ㅅㄱ {於}我ㅋ 前ㅇ十ㅅㅇ 大師子吼しㅅナトㅣ // 善男子아 이 月光王은 이미 過去 十千劫의 龍光王 佛法 가운데서 四住의 開士가 되었거늘 나는 八住의 菩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月光王이) 지금 내 앞에서 大師子吼를 하고 있다. <구인11:20-22>

나. 彼ㄱ {於}戱論界ㅇ十 易ㅎ 安住ㅅㅎ可ㄷㅅㄱㅗ 謂ㄱ {於}世間ㄷ 一切種淸淨ㅇ十ㅅ尸矢ㅿ {於}無戱論界ㅇ十ㄱ 難ㅔ安住ㅅㅎ可ㄷㅅㄱㅗ 謂ㄱ [於]出世間一切種淸淨ㅇ十ㅅ尸矢ㅣ // 그는 戱論界에서 쉽게 안주할 수 있으니 즉 世間의 一切種淸淨에 있는 것이며, 無戱論界에서는 어렵게야 안주할 수 있으니 즉 出世間一切種淸淨에 있는 것이다. <유가20:13-16>

16) 자토석독구결과의 대응에 의해서 파악하면 '11(·)'은 이 문맥에서 '丁'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토석독구결에서 '當知'는 '-ㅈㅣㄱ丁', '-ㄱㅣㄱ丁' 등과 호응한다.

가. 當ㅅ 知ㅎㅣ 五法ㅣ 所對治ㅣ尸{爲}ㅅㄹㅅㅈㅣㄱ丁 <유가09:20-10:02>

나. 當ㅅ 知ㅎㅣ 摠ㅎ 說ㅁㄱ 一門ㅇ十ㄱ 十二ㅣㅿ 一門ㅇ十ㄱ 十四ㅣㄱㅣㄱ丁 <유가10:08-15>

<유가08 06:15-17>

A: 或有[52(·)]煩惱[22~32(·),구결자(ㅐ)]是[33(·),구결자(ㄱ)]倒[42(·)]根本[52(/)][17]或有[52(·)]煩惱[22~32(·)]是[33(·)?,구결자(ㄱ)]顚倒[42(·)]體[52(/)][18]或有[52(·)]煩惱[22~32(·)]是[33(·)]倒[42(·)]等流[52(/)]

B: 或有[ナ]煩惱[ㅐ]是[ㄱ]倒[ヒ]根本[x丄]或有[ナ]煩惱[ㅐ]是[ㄱ]顚倒[ヒ]體[x丄]或有[ナ]煩惱[ㅐ]是[ㄱ]倒[ヒ]等流[x丄]

C: 或 有ナ(ㅣ) 煩惱ㅐ 是ㄱ 倒ヒ 根本x丄 或 有ナ(ㅣ) 煩惱ㅐ 是ㄱ 顚倒ヒ 體x丄 或 有ナ(ㅣ) 煩惱ㅐ 是ㄱ 倒ヒ 等流x丄

D: 혹 있다, 煩惱가 是는 倒의 根本임이여, 혹 있다, 煩惱가 是는 顚倒의 體임이여, 혹 있다, 煩惱가 是는 倒의 等流임이여.

E: 혹은 어떤 번뇌는 바로 뒤바뀜의 근본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번뇌는 바로 뒤바뀜의 바탕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번뇌는 뒤바뀜 따위의 무리이기도 하다.

<유가 권8 06:17-20>

A: 倒[42(·)]根本[51(·)]者[23~33(·)]謂无明[22~32(·),55(·)]顚倒

17) '52(·)'는 자토석독구결을 참고할 때, 'ナ'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자토석독구결에서는 '或有'가 출현하면 '화엄경'에서는 '或ㅁ 有ナㅣ'로 현토된다. '유가사지론'에는 '或有'는 나오지 않고 '若有'만 나온다. 한편, '或有' 뒤에서 '화엄경'에서는 주로 '-(ン)ㄱ矣ㅅ', '-(ン)ナ尸矣ㅅ', '화엄경소'에서는 '-(ン)ナ尸丁', '-(ン)ㄱㅐㅅ'가 온다. 그리고 '유가사지론'의 경우 '若有' 뒤에는 '-(ン)ナ干ㅅ', '-(ン)ナㄱㅐㅅ'가 온다. 이것은 '52(/)'의 파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가. 或ㅁ 有ナㅣ 佛矣 有ナハ ㅎ ㅁㄱ矣ㅅ 或ナㅣ 佛矣 無ㅎ ㅁㄱ矣ㅅ 或ㅁ 有ナㅣ 雜染ンㄱ矣ㅅ 或ナㅣ 淸淨ンㄱ矣ㅅ 或ㅁ 有ナㅣ 廣大ンㄱ矣ㅅ 或 狹小ンㄱ矣ㅅ 或ンㄱ 復ㅁ 有ナㅣ 成トㄱ矣ㅅ 或ㅁ 有ナㅣ 壞トㄱ矣ㅅ 或ㅁ 有ナㅣ 正住ンㄱ矣ㅅ 或ナㅣ 傍住ンㄱ矣ㅅ <화엄15:08-12>

나. 若 有ナㅣ 一切 苦惱乙 斷ン{爲}ㅅ 此 三處乙 受ンナ干ㅗ <유가16:16-22>

18) '43'에도 사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해독에 반영하기 어렵다.

[42(·)]體[51(·)]者[23~33(·)]謂薩迦耶見[31(·)]邊執見[42(·)]一分[31(·)]見取[31(·)]戒禁取[31(·)]及貪[31(·),55(·)]倒[42(·)]等流[51(·)]者[23~33(·)]謂邪見[31(·)]邊執見[42(·)]一分[31(·)]恚[31(·)]慢[31(·)]及疑[31(·),51(·)]

B: 倒[ㄷ]根本[ㅣ]者[ㅅㄱ]謂无明[ㅂ,ㅀ]顚倒[ㄷ]體[ㅣ]者[ㅅㄱ]謂薩迦耶見[ㅅ]邊執見[ㄷ]一分[ㅅ]見取[ㅅ]戒禁取[ㅅ]及貪[ㅅ,ㅀ]倒[ㄷ]等流[ㅣ]者[ㅅㄱ]謂邪見[ㅅ]邊執見[ㄷ]一分[ㅅ]恚[ㅅ]慢[ㅅ]及疑[ㅅ,ㅣ]

C: 倒ㄷ 根本(ㅂ)ㅣ{者}(ㅅㄱ)ㅅㄱ 謂 无明ㅂㅀ 顚倒ㄷ 體(ㅂ)ㅣ{者}(ㅅㄱ)ㅅㄱ 謂 薩迦耶見ㅅ 邊執見ㄷ 一分ㅅ 見取ㅅ 戒禁取ㅅ 及 貪ㅅ(ㅂ)ㅀ 倒ㄷ 等流(ㅂ)ㅣ{者}(ㅅㄱ)ㅅㄱ 謂 邪見ㅅ 邊執見ㄷ 一分ㅅ 恚ㅅ 慢ㅅ 及 疑ㅅ(ㅂ)ㅣ

D: 倒의 근본이라 하는 것은 즉 无明이며, 顚倒의 몸이라 하는 것은 즉 薩迦耶見과 邊執見의 一分과 見取와 戒禁取와 貪이며, 倒의 等流라 하는 것은 즉 邪見과 邊執見의 一分과 恚와 慢과 疑이다.

E: 뒤바뀜의 근본이라 함은 무명을 말하며, 뒤바뀜의 바탕이라 함은 몸에 대한 고집과 치우친 소견의 일부분과 소견의 고집, 계금에 대한 고집 및 탐냄을 말하며, 뒤바뀜과 같은 종류라 함은 사뙨 소견과 치우친 소견의 일부분과 성냄, 난 체 및 의심을 말한다.

<유가 권8 06:20-23>

A: 此[42(·)]中[44(·)]薩迦耶見[33(·)]是[33(·)]无我[44(·)]我[32~42(·),15~24(/),42(·)]倒[22~32(·),55(·)]邊執見[42(·)]一分[33(·)]是[33(·)]無常[44(·)]常[=32~42(·),15~24(/),42(·)?]倒[22~32(·),55(·)]見取[=33(·)]是[33(·)]不淨[=44(·)]淨[32~42(·),15~24(/),42(·)]倒[22~32(·),55(·)]戒禁取[33(·)]是[33(·)]於苦[44(·)]樂[32~4

2(·),15~24(/),42(·)]倒[22~32(·),55(·)]貪[33(·)]通[역독선]二種[34(·),53(/)]謂不淨[=44(·)]淨[32~42(·),15~24(/),42(·)]倒[31(·)]及於苦[44(·)]樂[32~42(·),15~24(/),42(·)]倒[31(·),51(·)]

B: 此[ㄴ]中[十]薩迦耶見[ㄱ]是[ㄱ]无我[十]我[ㅅ,ㅅ仝,ㄴ]倒[ㅛ,分]邊執見[ㄴ]一分[ㄱ]是[ㄱ]無常[十]常[ㅅ,ㅅ仝,ㄴ]倒[ㅛ,分]見取[ㄱ]是[ㄱ]不淨[十]淨[ㅅ,ㅅ仝,ㄴ]倒[ㅛ,分]戒禁取[ㄱ]是[ㄱ]於苦[十]樂[ㅅ,ㅅ仝,ㄴ]倒[ㅛ,分]貪[ㄱ]通二種[乙,x亠]謂不淨[十]淨[ㅅ,ㅅ仝,ㄴ]倒[人]及於苦[十]樂[ㅅ,ㅅ仝,ㄴ]倒[人,ㅣ]

C: 此ㄴ 中十 薩迦耶見ㄱ 是ㄱ 无我十 我(ㅛ)ㅅㅅ仝ㄴ 倒ㅛ分 邊執見ㄴ 一分ㄱ 是ㄱ 無常十 常(ㅛ)ㅅㅅ仝ㄴ 倒ㅛ分 見取ㄱ 是ㄱ 不淨十 淨(ㅛ)ㅅㅅ仝ㄴ 倒ㅛ分 戒禁取ㄱ 是ㄱ {於}苦十 樂(ㅛ)ㅅㅅ仝ㄴ 倒ㅛ分 貪ㄱ 二種乙 通x亠 謂 不淨十 淨(ㅛ)ㅅㅅ仝ㄴ 倒人 及 {於}苦十 樂(ㅛ)ㅅㅅ仝ㄴ 倒人(ㅛ)ㅣ

D: 이 중에서 薩迦耶見은 이는 无我에 (대해서) 我이라 하는 倒이며, 邊執見의 一分은 이는 無常에 (대해서) 常이라 하는 倒이며, 見取는 이는 不淨에 (대해서) 淨이라 하는 倒이며, 戒禁取는 이는 苦에 (대해서) 樂이라 하는 倒이며, 貪은 두 종류를 通하는 것이니, 즉 不淨에 (대해서) 淨이라 하는 倒와 苦에 (대해서) 樂이라 하는 倒이다.

E: 이 중에서, 몸에 대한 고집은 바로 <나>가 없는 데서 <나>라고 하는 뒤바뀜이며, 치우친 소견의 일부분은 바로 무상한 데서 항상하다는 뒤바뀜이며, 소견의 고집은 바로 깨끗하지 못한 데서 깨끗하다는 뒤바뀜이며, 계금에 대한 고집은 바로 괴로운 데서 즐겁다는 뒤바뀜이며, 탐냄은 두 가지 것에 통하나니, 깨끗하지 못한 데서 깨끗하다는 뒤바뀜과 괴로운 데서 즐겁다는 뒤바뀜이다.

참고문헌

김영욱(2001b),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57-77.

李丞宰·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pp.115-145.

장경준(2002a),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2.23) 발표 원고.

_____(2002b),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pp.205-225.

_____(2003a), 「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pp.227-247.

_____(2003b),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指示線'에 대하여」, 『日韓 漢字·漢文 受容에 關한 國際學術會議』(資料集), pp.159-177.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E-mail: leeyonghu@hotmail.com
접수일자: 2003. 07. 10.
게재결정: 2003. 08. 02.

A Decipherment of Cipher Gugyeols Inscribed in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3)

-Focusing on vol.Ⅷ, 05:18-06:23-

Lee, Yong

This paper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gugyeols inscribed in a part of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 vol. 8.

*Key words: cipher gugyeol(點吐口訣),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